

제 11장

애착 (Attachment)

차 례

1. 애착이란?
2. 애착의 단계
3. 애착의 개인차
4. 애착유형의 다양성
 - 1) 아버지와 애착
 - 2) 문화적 다양성
5.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애착
 - 1) Baumrind (1991)의 양육방식 구분
 - 2) 각 양육형태의 자녀들의 특징
 - 3) Baumrind의 양육유형론의 비판
6. 애착의 효과
 - 1) 애착의 질의 장기적 효과
 - 2) 부모의 취업과 애착의 질
 - 3) 보육원과 애착

1. 애착 (Attachment)이란?

- 영아와 특별한 사회적 인물 (주로 양육자)간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
- 애착의 이론
 - Freud:
 - 구강만족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한다
 - Erikson:
 - 생후 12개월 시 형성.
 - 신뢰 vs. 불신
 - 반론: Harlow의 실험
 - 음식제공보다 편안한 접촉을 더 선호

2. 애착의 단계

- 0-2개월
 - 본능적 애착단계
 - 굳이 엄마일 필요 없음
 -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양의 미소를 보임
- 2-7개월
 - 점차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 구분
 - 일차 양육자에 중점
- 7-24개월
 - 애착의 특수성 공고화
 - 능동적으로 접촉

3. 애착의 개인차

- Ainsworth의 실험
- “낯선 상황 (strange situation)”을 이용하여 애착의 개인차 탐구
- 총 4가지 유형의 애착유형 발견
 - 안정 애착형
 - 불안정 회피형
 - 불안정 저항형
 - 불안정 기타형

‘낮선 상황’ 실험단계

	참석자	시간	세팅
1	엄마, 아기, 실험자	30초	실험 설명
2	엄마, 아기	3분	아기는 탐색행동 엄마는 관찰
3	엄마, 아기, 낯선이	3분	낯선이가 들어와서 엄마와 대화
4	아기, 낯선이	3분 이내	엄마가 나감
5	엄마, 아기	3분 이상	엄마가 들어오고 낯선이는 나감
6	아기	3분 이내	엄마가 나감
7	아기, 낯선이	3분 이내	낯선이가 들어옴
8	엄마, 아기	3분	엄마가 들어옴

3. 애착의 개인차: 안정애착 유형

-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탐색행동 많음
-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낯선 이와 상호작용 많음
- 엄마가 방을 떠났을 때 불안해 함
- 엄마가 다시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 재개

3. 애착의 개인차: 불안정 애착 유형

- 불안정 회피 유형

- 양육자와 상호작용 적음
- 방을 떠났을 때 매우 스트레스적인 반응 / 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
- 돌아온 후 별다른 접촉 시도 없음

- 불안정 저항 유형

- 양육자에게 자주 매달리고 차거나 밀거나 함
- 방을 떠났을 때 매우 스트레스적인 반응
- 돌아온 후 양가적 감정

3. 애착의 개인차: 안정애착의 효과

- 안정애착 아동의 경우 이후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효과 (Ainsworth)
- 안정애착 아동의 경우 더 높은 지능과 상관관계 존재
- 안정 애착아동의 경우 뇌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→ 뇌 발달에 긍정적 영향?

4. 애착유형의 다양성

- 애착유형은 ‘아기만의 독립적인 특징’인가?
-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애착유형의 구정에 큰 역할
 - 아기의 신호에 민감한 부모일수록 안정애착 관계형성의 가능성 증가
- 가족사와 관련된 환경요인 (예, 부모의 이혼)도 애착형성에 크게 기여

4-1. 애착유형의 다양성: 아버지와 애착

- 원칙적으로 아버지도 유능한 양육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 (Parke, 1995)
-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차이
 - 보통 어머니는 보호활동 (음식, 기저귀, 목욕) 중심. 아버지는 놀이활동 선호
 - 어머니의 놀이는 아이의 관심을 끌려는 놀이가 많은 편. 아버지는 거칠고 신체적
 -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스킨십 강도가 더 세고 많은 편
- 아동의 선호도
 -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한 아동은 보통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별히 선호대상 없음
 - 낯선 사람을 보았던지 스트레스 상황이 클수록 엄마를 선호

4-2. 애착유형의 다양성: 문화적 다양성

	안정	불안정 회피	불안정 저항
미국	62%	23%	15%
독일	33%	49%	12%
일본	70%	0%	30%
이스라엘	38%	12%	50%
스웨덴	75%	22%	3%

4-2. 애착유형의 다양성: 문화적 다양성

- 정확한 이유: 아무도 모름
- 가설: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?
 - 독일: 미국보다 아기들의 자율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문화로 엄마에게 응석부리는 것을 전통적으로 매우 나쁘게 봄
 - 일본: 실험 전에 엄마랑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아기가 거의 없었음
 - 이스라엘: 키부츠에서 공동생활. 'stranger'를 본 적이 없음
- 정확한 이유는 모름. 하지만 두 가지 의의점 존재
 - 1) 애착은 생물학적, 범문화적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
 - 2) '안정애착' 이 언제나 '좋은 것' 이라는 의미는 아니다

5.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애착

- Baumrind (1991)의 양육방식 구분
 - 독재적, 권위주의적 (authoritarian)
 - 허용적 (permissive)
 - 거부적, 무시적 (rejecting)
 - 권위적, 민주적 (authoritative)

5. 독재적, 처벌적 (authoritarian) 형태

- 요구는 많지만 자녀의 요구에는 반응 둔감
- 질서와 전통에 대한 가치 존중
- 자녀의 독창적인 사고에 대한 지지 부족
- 자녀들에 대한 면밀한 감시, 개입
- 자녀의 잘못에 대해 처벌적
- 물리적 방법 선호

5. 허용적 (permissive) 형태

- 온건하고 수용적
- 정서적으로 자녀와 과도하게 밀착
- 너그러운 편, 자녀와의 충돌 회피
- 자녀 스스로의 자율과 규제 허용
- 수행기준이나 룰을 세우지 않는 편
- 주로 자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형태의 복종

5. 거부적, 무시적 (rejecting) 형태

- 자녀를 그냥 알아서 크게 놔두는 형태
- 자녀생활에 거의 개입 없음
- 요구 없고 요구 받아들이지 않음
- 정서적으로 과소밀착

5. 권위적, 민주적 (authoritative) 형태

- 자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
- 자녀의 욕구변화에 민감
- 대화와 설득을 통한 복종
- 독립적 사고 고무
- 의견존중
-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

5-2. 각 양육형태의 자녀들의 특징

- 처벌적인 부모의 자녀
 - 복종적. 하지만 가끔 매우 반항적
 - 동료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경향
 - 자신감이 부족한 편
 - 두려움이 많고 우울한 경향
 - 학업능력 및 성취도 낮은 편
 - 대개 자신도 처벌적이 되는 경향
-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
 - 자기통제력 부족한 경우 많음
 - 권위적인 사람과 관계형성 어려울 경우 많음
 - 자신감 높음
 - 학업성취도는 그다지..

5-2. 각 양육형태의 자녀들의 특징

- 거부형 부모의 자녀
 - 가장 비독립적
 - 가장 성취수준 낮은 편
 - 문제행동 많은 편
- 권위적 부모의 자녀
 - 적응력 높음.
 - 긍정적 자아개념
 - 학문적으로 유능한 편
 - 애착의 질이 가장 좋다고 알려짐

5-3. Baumrind의 양육유형론의 비판

- 유형론으로 적절한가?
 - 이렇게 4유형으로 딱 떨어지는 가정은 별로 없음
 - 실제로는 대부분 기분이나 환경, 맥락에 따라 위에 언급한 형태를 조합하여 사용
- 양육 유형이 발달을 이끄는 것인가, 아동의 특질이 특정 양육형태를 규정하는 것인가?
 - 말 잘 듣고 조용한 아이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이 가능. 하지만 아이가 원래 천방지축이라면?
- 연령, 민족, 사회경제 수준, 문화적 요인
 - 연령: 나이든 부모는 허용적, 젊은 부모는 통제적
 - 문화: Chao (1994): 서구문화에 근거. 아시아에서는 대체로 통제적이지만 애들은 잘 크다

6-1. 애착의 효과: 애착의 질의 장기적 효과

- 2세의 문제해결 능력과 긍정적 상관 (Frankel & Bates, 1990)
- 2세의 창의성, 긍정정서, 또래 인기도와도 정적 상관
- 청소년기 또래인기와의 긍정상관 (Englund et al., 2000)
- 그럼 초기애착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가?
 - 부모가 아닌 조부모, 양육자 등의 개입으로도 안정애착 가능
 - 극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중요한 타인의 유무로서 바뀔 가능성 매우 높음
 - 아동의 높은 가소성: Canalization

6-2. 애착의 효과: 부모의 취업과 애착의 질

-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가는 애착의 질과 별다른 관련성 없음
- 어머니의 일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
- 일을 하고 싶은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애착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

6-3. 애착의 효과: 보육원과 애착

- 타인에 의한 육아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는가?
- 다른 요인의 혼입이 많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관계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
- 보육소의 ‘질’은 아동의 이후 인지발달, 15개월 시 애착과 관련. 하지만 36개월 시에는 관련성 사라짐
- 보육소에서 보내는 ‘양’도 어느 정도 관련.
- 결론: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타인의 보육과 부모에 대한 애착은 “큰” 관련은 없어 보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패턴은 전통적인 방식 (부모에 의한 육아)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많이 존재

6-3. 애착의 효과: 보육원과 애착

- 가장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
 - 탁아시설이 양, 질적으로 풍부하고
 - 부모가 영아와 상호작용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
 - 즉, 국가가 돈을 충분히 쓰는 것
- 출산휴가
 - 길수록 애착의 질과는 더 상관
 - 특히 우울이나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경우 더 큰 효과가 있는 편

각국의 출산휴가정책 (2000년 기준)

- 캐나다: 부모 모두 50% 급료로 출산휴가 15주. 이후 10주의 추가 무급휴가 신청가능
 - 핀란드: 부모 모두 70% 급료로 출산휴가 18주. 이후 10주의 추가 무급휴가 신청가능
 - 독일: 부모 모두 100% 급료로 출산휴가 14주. 이후 어머니는 50% 급료로 추가 휴가 반년 신청가능
 - 스웨덴: 부모 모두 80% 임금으로 출산휴가 1년. 추가 3개월간 정액제 휴가, 이후 추가 3개월간 무급휴가 신청가능
 - 포르투갈: 어머니만 100% 임금으로 출산휴가 6개월.
 - 미국: 50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모 중 한명 만 12주 무급휴가
 - 멕시코: 어머니만 100%임금으로 출산휴가 12주
 - 북한: 어머니만 출산휴가 150일. 100%배급
 - 한국 (2007년): 출산휴가 90일. 100%급료 (처음 60일). 전후로 알아서 나눠서 씬. 아버지는 최소 3일 가능
- 통계치 로만 보면 한국은 나쁘지 않은 편